

지역 소식통

정읍시 · 군민권익위, 이동 신문고 운영 주민 고충 해결

정읍시와 국민권익위가 '달리는 국민 신문고'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선다. 시는 내달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민권익위와 함께 정읍시청 5층 대화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을 원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민원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현장 민원 상담제도다.

분야별 전문지식과 상담 경험이 풍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들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등 6개 협업 기관이 참여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한문철 변호사 초청 선진교통문화 형성 특강

정읍시가 교통법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해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를 주제로 특별 강의를 마련했다. 오는 24일 오후 1시 정읍시체육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블랙박스 영상 속 보행자 사고와 음주운전, 급발진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 사례를 보여주며 사고 예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교통사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하우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 안전한 교통법규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강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탄생

터미널 직영전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선정

50여년간 지역민의 발이 되어왔던 '고창터미널'이 마침내 고창군민의 품에 안겼다. 향후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활력넘치는 고창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양수해 군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창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197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1986년 현재 위치에 지상 2층 연면적 1420㎡ 규모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경영난 등을 이유로 매각이 추진돼 왔고,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폐업의사를 전달해 왔다. 이에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 직후 터미널 폐업에 따른 막대한 주민불편 등을 감안해 직영 운영을 결정, 지난해부터 절차(고창군의회 동의, 관련 조례 제정 등)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쇠퇴한 터미널을 청년문화복합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주상복합 건물로 1층 터미널과 청년 복합문화센터, 공공형 오피스텔(210세대), 디자인특화거리 등 2027년까지 1707억원(국비 250억원, 도비 42억원,

군비 125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원, 기태090억원 등)이 투입하여 신속될 예정이다.

터미널 운영은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혁신지구 사업전까지 고창군에서 직영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위해 터미널 뒷편 상가를 사업지구로 추가 편입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상가주들과 협의 중에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든 고창터미널을 잘 관리해서 안정적인 버스 운행과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기적의 도서관, 문체부 주관 3개 공모사업 선정

국비 3000만원 확보... 10월까지 독서·문화프로그램 풍성

정읍시 기적의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 등 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3개 사업이다.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에 작가가 상주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1,700만 원을 지원받아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기적의 도서관은 현지 작가와 함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탄탄,

'한낮의 일기', '달쓰기 처방전' 등 읽고 쓰고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인문학 강연이다. 9백만 원을 지원받아 6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館(건물 관)을 통한 觀(관)을 넓히는 인문학을 주제로 우리 생활에 자리하는 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 건물에 대한 지식 강연과 건물 탐방이 진행된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기적의 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책 읽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다. 5월부터 9월까지 주

1회씩 총 19회에 걸쳐 운영된다. 매주 다른 그림책을 읽으며 어린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은 물론 도서관 견학과 탐방 등 야외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책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적의 도서관(☎063-539-6435)으로 문의하거나 정읍시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jongup.go.kr>)를 참조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천년의 숨씨 부안노을감자 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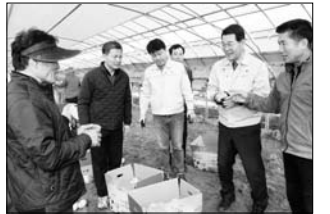
권익현 군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부안군의 대표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은 천년의 숨씨 부안노을감자를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본격적으로 수확한다.

올해 부안노을감자는 동진면과 계화면을 중심으로 149ha, 1,562동의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중이며 연말·연초 강풍과 저온으로 생육이 지연되어 예년에 비해 수확시기가 1주일 이상 늦어졌으며, 2월부터 평년기온을 유지하여 현재 생육은 양호한 상태이며, 생산량은 평년대비 5~10%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부안노을감자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어 타 감자 주산지 보다 일찍 수확, 높은가격에 출하하여 부안군 대표 고소득 작목이 되고 있다.

특히, 부안노을감자는 감자재배에 적합한 사질토양에서 부안의 지리적 특장인 해풍을 맞고 자라 맛이 매우



뛰어나며, 저장성 또한 좋아 서울 가락시장 출하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3월 21일 계화면 농가의 감자 수확현장을 찾아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하고, 앞으로도 부안군 대표 소득작목인 부안노을감자의 품질관리를 통해 브랜드 향상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청보리밭축제 · 황토배기 멜론 브랜드 대상

전북 고창군이 202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에 '고창 청보리밭축제(생태관광축제 부문)'와 '고창황토배기 멜론(농산물 부문)'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imbc,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브랜드 시상행사다.

지난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15일간 브랜드신뢰도, 브랜드품질, 브랜드충성도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한 인터넷 소비자조사와 브랜드 선정위원회 인증위원들의 인증사를 통해 고창 청보리밭축제와 고창 황토배기 멜론이 최종 선정됐다.

고창황토배기 멜론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서해안 해풍, 높은 일조차 등 농산물 재배에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농가들의 정직한 땀과 열정이 더해져 만들어진다.

군은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해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생산부터 출하까지 일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그 우수성을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홍콩 등지에 수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최고 품질의 멜론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2023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가자! 싱그러운 초록나원 청보리밭'을 주제로 4월15~5월7일까지 2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남초, 강릉 평창동계올림픽 체험활동 위한 '반다비' 캠프 성료

부안남초등학교(교장 정한상)는 4·5·6학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2일)에 걸쳐 평창 올림픽의 역사가 담긴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강릉하기센터, 강릉아레나)에서 강릉 반다비 캠프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강릉 반다비 캠프는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이 주최하고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스포츠 캠프이다. 이 캠프는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 정서 함양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목표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8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반다비 캠프 참가자를 전국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에 신청했다. 부안남초는 2년 전 반다비 캠프에 처음으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이번 강릉 반다비 스포츠 캠프는 평

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보던 평창 올림픽의 현장과 역사를 되짚어 보며 평창 올림픽의 감동과 경험, 포용적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됐다.

정한상 교장은 "이번 강릉 반다비 캠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험형 스포츠 캠프였기에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미가 남다르다"며 "올림픽 개최지에서 직접 동계 스포츠 종목을 체험하면서 평창 올림픽이 남긴 긍정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 평창 기념재단 운영진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어촌공 부안지사, 농지은행 수요자 중심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응표)는 청년농, 위기농, 은퇴농 등 지원사업으로 농지은행사업에 254억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 중 많은 비중(68%, 174억원)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

원 농지매입사업'에 54억원을 투입한다는 것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해당 농가가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 받으면 후환해도 가능하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232농가가 농업 경영유지에 도움을 받았다.

이밖에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에도 10억원이 투입된다. 2011년 첫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264명이 가입해 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